3명의 창조신이 있음

* 브라흐마 : 우주의 창조
* 비슈누 : 우주의 유지
* 시바 : 우주의 파괴

창조신들의 목적은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창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영혼이 수많은 번뇌와 번민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깨우쳐야 함. 그래서 브라흐마가 피조물들의 터전인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피조물들이 번뇌를 느끼게하기위해 여러 가치가 대립하고 끝없이 모순이 충돌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만들어놓음. 그 불완전함 때문에 매번 우주적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문제를 케어하는 것이 우주의 유지를 담당하는 비슈누의 역할. 그러나 비슈누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피조물들이 시련을 겪을 수 없으므로 기준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줌. 비슈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손쓸 수 없는 사태까지 번져 우주가 크게 망가지면 시바가 우주를 파괴하고 브라흐마가 새로운 형태로 창조하는 것을 반복함

이 이야기는 그렇게 창조되고 사라져가는 여러 우주 중 하나의 이야기

지금의 우주는 여러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분리되어 있음 그중 중요한 3개의 차원

* 인간계 :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 인간들이 살아가는 터전
* 천상계 : 천신과 그들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살아가는 세계
* 지옥계 : 마신과 악마, 수라들이 살아가는 세계

원칙적으로 각 차원은 서로 분리 있음 일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차원을 넘나들며 다른 차원에 간섭할 수 있지만 직접 힘을 사용하려면 크나큰 제약조건이 붙게 됨(예를 들면 통로가 좁아서 덩치가 큰 놈들은 멀쩡한 상태로는 지나다닐 수 없는 개념)

천신과 마신들은 개념에서 탄생한 존재로 근원에 맞게 창조신이 부여한 숙명에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끝없이 우주전체에 영향을 주려고함

6개의 종족이 존재함(6도) 윤회의 고리에 따라 모든 생명은 죽은 뒤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 영혼은 전생의 기억을 씻어내고 업에 따라 6개의 종족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남

인간 : 인간계에서 살아감

수라 : 괴물들, 지옥계와 인간계, 두 곳에서 태어남

악마 : 지옥계를 살아가는 종족

축생 : 동물, 인간계에만 존재함

천상 : 천상계에서 살아감

아귀 : todo 얘들은 뭐임…?

마신 칼리 : 혼돈과 멸망의 신

칼리가 인간들을 타락시켜 파괴신 시바의 권능이 깃든 유물을 이용해 윤회의 법칙을 망가뜨리고 차원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함. 이를 눈치챈 비슈누가 우주의 균형을 위해 나서게 되고 본인의 아바타로써 주인공을 선택하여 가호와 숙명을 부여함(주인공은 이 사실을아는가? 모르는가?)

우주의 법칙이 망가져버려 죽은자들이 윤회의 고리로 돌아가지못하고 제자리에서 6도의 다른 종족으로 환생하며, 전생의 기억이 뒤섞여 이성을 상실하고 날뜀. 주인공은 비슈누의 가호를 받아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이성을 유지한 채로 인간으로써 다시 태어날 수 있음. 주인공은 적을 무찌르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윤회의 고리로 돌려보냄으로써 질서를 회복시키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